

동탄인덕원선 본격화, 능동역 출입구 여전히 '미정'

용역 결과 6월 말, 상반기 중 결정 불가능



확대 여부가 여전히 미정이라서 우려를 사고 있다. 동탄인덕원선은 서울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부터 안양시, 수원시를 거쳐 화성시 서동탄역까지 이어지는 복선전철이다.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기능 확충을 목표로 복선 34.23km, 단선 4.73km 총 38.96km의 철도를 건설한다. 동탄인덕원선은 특히 화성시민의 기대가 크다. 광고에서 신분당선, 영동에서 분당선, 동탄에서 SRT와 GTX를 연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강남권까지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혁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화성시에는 당초 전체 18개 역 중 4개 역이 마련됐지만 지역민의 강력한 요구로 115억, 일명 능동역 추가 설치가 결정됐다. 능동역은 진안산도시 개발, 기산지구 개발 계획 등 교통 수요가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의 'Key'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능동역에 진안산도시와 병점 방향의 출입구가 없어 주민들의 큰 반발을 가져왔다. 기산동의 한 주민은 "병점 방향으로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이동주민들도 많은데 정작 출입구는 없다"라면서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결국 화성시가 '동탄인덕원선 이용 여건 최적화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추가 출입구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상반기 중 동탄인덕원선 공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용역 최종 결과는 6월 말이나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용역 결과를 참고해 출입구 추가 문제가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상반기 내 불가능해진 것이다. 능동역은 신규로 추가되는 조건으로 전체 사업비의 50%인 664억원을 화성시가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능동역에 출입구를 추가하는 예상 사업비 190억원은 오로지 화성시 몫이다. 출입구 추가가 확정되면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동탄인덕원선 이용 여건 최적화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온 후에야 이를 토대로 추가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동탄인덕원선 공사가 향후 5~6년 지속되는 만큼 조금 늦게 설치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다. 능동의 한 주민은 "화성시가 비용 문제로 인해 출입구 설치를 주저하고 있다고 들었다"라면서 "향후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고 주민편의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병점, 진안산도시, 기산지구 방향 추가 출입구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도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는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출입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통해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화성시 지정 향토무형문화재 지원 없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니냐"

화성시가 최근 보존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무형문화재 단체에 대한 심사·선발 조례안은 존재하지만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 16조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항은 문화재로 지정·해체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무형문화재 기능·기에 보유자 혹은 기능·기에 보유단체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화성시는 지정 또는 해제 신청된 문화재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 위원 2명 이상 혹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시장이 이를 지정 또는 해제한다는 것이다. 즉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원하는 신청이 들어올 시 6개월 내에 심의를 통해 승인 혹은 부적합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향토문화재 선발에 대한 조례안은 개정했지만 지정된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단체가 향토문화재로 지정될 시 국가 혹은 경기도로부터 지정된 것이 아닌 화성시로부터 지정된 것이기에 지원이 없는 것이다. 향토무형문화재 심사를 진행 중인 단체 관계자는 "화성시에서 향토무형문화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긴 한데 지원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송선영 화성시의원은 "현재 향토문화재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지만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같이 명확한 분야가 나눠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시가 향토문화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면 진작 만들었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국가유산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에 맞춰 화성시도 향토무형문화재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며 "5월 시행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위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지원 조례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화성 4개 선거구 시대 개막, 후보 '오리무중'

화성시 경선 현황

선거구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갑	홍형선	송옥주	미정
을	미정	공영운(유력)	이준석
병	미정	권철승	미정
정	미정	진석범 조대현 전용기	이원욱

후보가 결정됐다. 을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을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제 22대 총선, 마래가 가득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화성시 을에 도전한다"라고 밝혔다.

선거구재획정안 확정
정 선거구 관심 집중

화성시 갑·을·병 3개 선거구가 갑·을·병·정 4개 선거구로 1개 확대됐다. 국회는 2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송부한 '선거구재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화성시는 기존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에서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 화성시정선거구로 1개 선거구가 분구됐다. 선거구는 기존 알려진 그대로 확정됐다. 화성시갑선거구는 남양읍,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양감면, 우정읍,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향남읍이다. 화성시을선거구는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화성시병선거구는 기배동, 병점1동, 병점2동, 봉담읍, 진안동, 화산동으로 정해졌다. 관심을 모았던 신설 화성시정선거구는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5동, 반월동으로 결정됐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후보, 국민의힘 홍형선 후보, 홍성진 진보당

동탄2에서 출마를 선언했던 서철모 전 화성시장도 3일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서 전 시장은 3일 현재 지지자들과 향후 계획을 고민 중이다. 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후보가 단수 공천된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는 미정이다. 신설 정선거구의 경우 화성시정 더불어민주당은 진석범, 조대현, 전용기 3인이 10~11일 여론조사 100%인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미정이며, 이원욱 현 화성시 국회의원이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은주 경기도의원도 공영에 화성시의원의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곳의 선거운동도 시작했다. 경기도의원 제7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진경 화성시약사회 회장과 국민의힘 김기중 광주 지구축산업협동조합 사외이사 후보로 등록했다. 화성시의원 가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 국민의힘 박연숙 공정과상식 경기지역본부 공동대표,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이번 재획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1명 늘려 254명으로, 비례 국회의원을 1석 줄여 46석으로 했다. 서민규·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Weekly Issue

화성시 지질명소 8곳 '국가지질공원'	3면
[CEO 인터뷰] 김송환 ㈜화신페이퍼텍 대표	7면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성료	12면



화성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개최

일시
 2024. 3. 13.(수) ~ 3. 15.(금) [3일간]

내용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화성시의회는 늘 10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광위, 동탄역 환승센터 건설 집중 관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

동탄2신도시에 건설되는 동탄역 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집중 관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32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관리사업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

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고, 대광위 차원에서 갈등을 신속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2개 사업 중 동탄역 환승센터는 총 2480억원을 투자해 환승시설 3만㎡, 지원시설 10만㎡ 총 13만㎡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대광위는 이날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주민의 잃어버린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다해 TF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착공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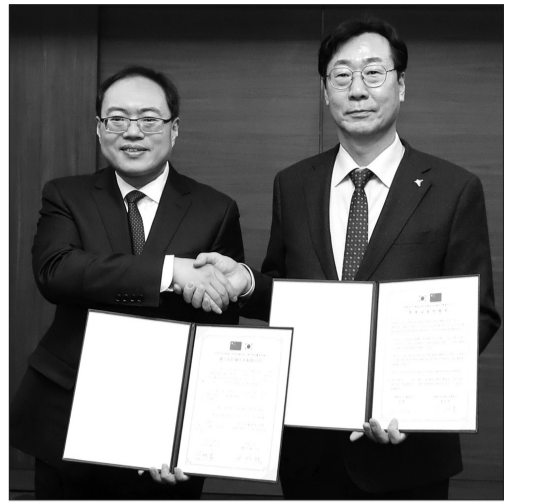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화성시-중원청시, 손 잡고 상생발전·공동번영 모색

우호교류의향서 교환 추후 정식 협약 체결기로

화성시와 중국 연청시는 25일 롤링힐스 호텔에서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했다.

중국 내 대표적인 친(親)한국 도시인 연청시 장밍강 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우호교류의향서에 서명하고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호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추후 정식으로 우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장밍강 연청 시장(좌측)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청시는 면적 약 1만 7000km, 인구 약 800만 명 규모의 도시로, 장수성 중부 연해 지역에 위치해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교류,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며 연청시경제기술개발구 내 한중 산업단지가 조성돼 기아 등 자동차 산업 관련 한국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다. 도로표지판에 한국어를 병기하는 등 한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우리 시와 연청시는 경제, 자연환경, 지리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진 도시"라며 "이번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경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통해 양 도시가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밍강 연청시장은 "연청시는 장수성에서 가

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와의 이번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은 양 도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연청시는 2022년부터 화성시에 지속적으로 교류의사를 전달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연청시 대표단이 화성시에서 개최한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에 방문했으며, 11월에는 화성시 대표단이 연청시에서 개최한 '제5회 한중 무역투자 박람회'에 방문하며 우호교류의 초석을 마련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GTX-A 수서~동탄 영업시운전 개시



백원국 국토부 차관이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이 2월 23일~3월 13일 20일간 실시 중이다.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 상황에 맞춰 실시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 사전 점검, 시설물 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완료한 바 있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영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4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화성시, 혁신적 정책 높은 평가

화성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평가다.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항목 10개 지표

로 실시됐다.

화성시는 평가 결과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기관 자율혁신 △주민소통 정책화 △민관협력 활성화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국민체감도 평가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Si를 접목한 화성형 어린이 보행안전 서비스를 구축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비온(코무늬)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펼친 노

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을 활용한 AI 기반 디지털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도로 교통관리를 도모하고, 행정협업을 통한 화성시 다자녀 모바일 앱도 도입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관행적인 업무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화성특색에 걸맞은 변화된 혁신평정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남양-서울역 오가는 4104번 준공영제 전환

현대기아연구소에서 서울역을 오가는 화성 4104번 노선이 하반기 준공영제로 전환돼 운영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관리 등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며 운영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성 4104 버스는 올해 상반기 중 제부여객이 운영할 예정이다. 총 10대가 남양을 현대기아연구소로 기점으로 서울역버스환승센터까지 운영한다.

국토부 대광위는 화성 4104번 이외에도 고양 M7119, 오산 M5532, 용인 M4455번도 준공영제로 하반기 신설, 전환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연간 40만원 지원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헌판식이 진행 중이다.

화성시, 12개 공공형 반려동물 병원 헌판식

화성시가 26일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헌판식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 오희경 화성시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

기 화성시수의사회장, 시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 개시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응원했다.

올해 첫 시행하는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은 건강관리,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이다. 본인 명의로 등록된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진료를 원하는 경우 지정 병원에 사전 예약한 뒤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명서를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내원하면 된다.

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은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확대와 폭넓은 의료혜택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에 앞장서는 화성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주택 140동·비주택 35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

화성시가 시민 건강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6일부터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받는다.

지원 규모는 주택 140동과 비주택 35동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은 동당 최대 352만 원이며,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한다. 초과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시 게시판에 등록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투환경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유청모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화성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성시,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445억원 지원

화성시가 올해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2612대, 전기화물차 650대, 전기승합차 10대, 수소자동차 397대 총 4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자동차는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추후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시 게시판에 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를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택시, 택배용 차량 등 특수용도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고, 올해부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신청자의 의무거주기간이 2개월로 확대돼 구매지연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2개월 이상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화성시 인사발령 (2024년 3월 1일자)

- ▷복직
 - △임연수 군공항대응과 △김수연 동탄5동 △조금현 생활보장과 △유원환 안전정책과 △구분찬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정다혜 여성다문화과 △이재진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김혜진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인성열 팔탄면 △윤근식 병장동 △김보라 동탄4동 △권봉재 마도면 △오성영 동탄6동 △김중진 동부공원관리과 △김중훈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정명진 정보통신과 △최소송 팔탄면 △한누리 동탄7동 △최세영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김유경 스마트도시과 △손주희 반월동 △김지현 봉담읍 △윤미라 병장2동
- ▷승진
 - △김보화 균형발전담당관 △김정영 예산재정과 △공공환경지원과 △오진아 자치행정과 △장지영 경제정책과 △손정아 복지정책과 △김미란 동탄출장소 총무과 △염태국 도세관리과 △조재진 첨단교통과 △염현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유다혜 농업정책과 △노기찬 도로과 △양진영 토지정보과 △곽희준 부동산관리과 △고우창 균형발전담당관 △양미나 예산재정과 △김민정 의회법무과 △김지영 문화유산과 △박기도 생활보장과 △김보연 청년청소년정책과 △김규원 건설과 △김보라 남양읍 △윤지민 동탄5동 △김고은 세정과 △이미선 도세관리과 △한민희 중앙년노인복지과 △김연실 반월동 △양지영 도시디자인과 △이수정 교통행정과 △정미경 부동산관리과 △김석현 안전정책과 △김정호 남양읍 △문예은 스마트도시과 △양소영 기업지원과 △고소산 관광진흥과 △방수진 공동주택관리과 △윤수형 도로관리과 △백우열 맑은물운영과 △최지은 자원순환과 △김은미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최수진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김지선 우정읍 △권오승 장안면 △정민주 화성동 △최수정 동탄동 △김지원 정수과 △배소라 정보통신과 △이재민 정보통신과 △박정
- ▷신규임용
 - △박원진 안전정책과 △박중진 해양수산과 △김태근 평생교육과 △김규진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오은실 동탄출장소 세무과 △이재영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김정우 남양읍 △석동근 매송면 △윤재범 진안동 △허지원 병장동 △정윤지 세정과 △홍은지 정수과 △송윤지 중앙년노인복지과 △안정현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염영훈 안전정책과 △이정현 공동주택관리과 △김동희 건설과
- ▷전보
 - △윤일진 회계과 △김희영 경제정책과 △전애리 평생교육과 △서연경 병장2동 △김도영 기배동 △김충혁 팔탄면 △심정은 중앙년노인복지과 △전영서 진안동 △곽현주 우정읍 △김혜선 공원조성과 △박진영 향남읍 △박미영 공동주택관리과 △안성현 행정지원과 △조소민 문화유산과 △김기원 도시정책과 △김서현 산림휴양과 △김애리 부동산관리과 △김지수 예산재정과 △정대희 평생교육과 △최민정 동탄출장소 세무과 △이윤희 장애인복지과 △김규영 동부출장소 세무과
- ▷전임
 - △이유진 동탄6동

www.ihnews.com
 우리지역 대표신문 **화성신문** news@ihnews.com

대표이사/발행인 민병욱 인쇄인 장용호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민규
 (우)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정로 37-6 메트로프라자 702호

2004년 10월 13일 창간 등록번호 경기 다 01063호 본지는 신문윤리규명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전 화 : (031)232-1980(대표) ■ 팩 스 : (031)225-0159 ■ E-mail : news@ihnews.com
 ■ 구독료 : 평생 구독료 1백만원, 연 구독료 10만원, 1부 2,500원 / 농협 351-0076-7779-73 (주)화성신문

화성시 지질명소 8곳 '국가지질공원'

“지질문화의 가치를 인정 받은 것”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8곳 중 하나인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모습.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화성 지질명소 8곳이 유일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됐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지질공원으로,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9일 서명 방식으로 개최된 제29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화성시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했으며, 29일 화성시 신규 인증을 포함한 백령·대청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

원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내 단일시군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선정된 것으로, 화성시는 전국에서 16번째 국가지질공원을 보유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곳은 300개 이상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국내 최대 공룡 산란지다. 동아시아 지각의 구조적·변형적 특징과 그 상호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돼 지질명소 8곳을 포함한 282.5km²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인증받은 8곳은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우음도 △전곡항 층상응회암 △제부도 △백미리 해안 △공평항 △국화도 △임파도이다.

화성시는 서부권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2016년부터 추진해 왔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후보지 신청서 검토 결과 부적합 받았으며, 이후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재신청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예비인증을 가결받았다.

2023년 탐방인프라 개선 및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환경부에 재신청 후 환경부의 지질공원위원회 현장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29일 화성시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 및 고시가 발표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 신규로 인증된 곳은 화성시가 유일한 것으로 타시군의 경우 특정지역과 협업을 통해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며 “단일로 인정받은 것은 도내에서 화성시가 최초로 이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것은 지질문화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는 국가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질명소 탐방 인프라 구축, 지질공원 교육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홍보, 지질공원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등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진석범 예비후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만들 것”

진석범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6일 화성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는 환경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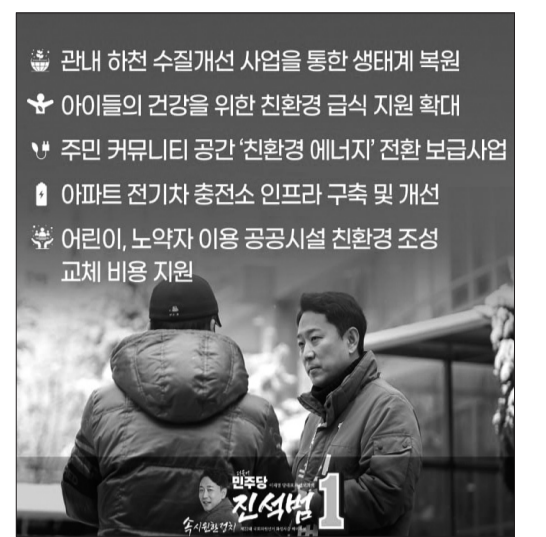
진 후보는 화성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다각도 계획과 지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진 후보는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해 지역 내 하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작업을 실시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급식에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을 확대해 화성시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공간의 환경 친화적인 변화를 목표로 어린이와 노약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친환경 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도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해 지역 사회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진 후보의 계획이다.

진석범 후보는 “동탄지역이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지역사회의



진석범 예비후보가 동탄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는 환경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동탄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석호현 예비후보 실천공약 8호 “시립미술관 봉담 신설”

석호현 화성병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6일 실천공약 시리즈 8호로 ‘화성시 시립미술관 봉담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석호현 후보는 “화성시는 동-서간 도시기반시설 불균형으로 민민갈등이 지속되고, 특히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여가선용 시설 등에 지역적 투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화성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조사,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지 못하고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 중심권역이자 단일행정구역상 최대 인구가 상주하는 봉담읍에 화성시 시립미술관 신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석호현 후보는 “봉담2지구, 봉담3지구, 효행지구, 수영지구 등 인구유입이 급격히 진행될 봉담



석호현 예비후보가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에 문화, 체육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라면서 “화성시 시립미술관 신설을 반드시 봉담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업대상지 원점검토, 관계부처와 협의, 설득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조대현 예비후보, ‘첨단산업 인재양성 메카’ 인재육성 정책 발표



조대현 후보가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동탄신도시와 진안신도시를 탈바꿈 시키겠다는 인재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6일 동탄신도시와 진안신도시를 첨단산업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정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2023년 제정된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에 따라 대기업의 사내대학원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진만큼 동탄 5동의 동탄테크노밸리와 반월동 진안신도시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의 사내대학원 대학 설립을 적극 유치하겠다”며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을 밝혔다.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은 2023년 11월 제정돼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대학 중심 교육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교육이다.

조대현 후보는 “첨단산업, 과학기술, R&D, 인재육성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반도체,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메카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동탄과 진안신도시를 탈바꿈시키면 지역경제도 동반해서 활성화해 진정한 의미의 산학 협력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후보는 △세계 1위 장비업체 ASML의 반도체 교육사업 지원 △카이스트(KAIST)와 화성시 간 사이언스 허브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회 경환위-자원순환연합회, 규제완화 방안 등 논의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와 화성시 자원순환연합회가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조오순)는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자원순환연합회

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져 있는 자원순환시설의 입지기준 완화가 건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시설의 입지관련 주택수 규제 완화 △자원순환시설 증축 관련 규제 완화 △자원순환시설 증축시 심의 및 자료제출도 규제 완화를 가지고 의견을 냈다.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은 “폐기를 재활용관련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를 감축에 있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정철규 의원, 배정수 의원, 김종복 의원이, 자원순환연합회에서는 강인태 회장 등 임원 6명과 화성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홍성규 예비후보 “시장이 세계자연유산 입장 밝혀야”

“절호의 기회 왔는데 화성시는 무사안일” 지적

홍성규 화성갑 진보당 예비후보는 26일 성명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관련 화성시의 입장이 너무나 한가롭고 무사안일하다. 정명근 시장은 즉각 결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홍 후보에 따르면 19일 (재)한국야생초식동물연구회 산등재추진단이 화성을 찾아 ‘화성습지(갯벌)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시민서포터즈’와 간담회를 갖고 갯벌과 습지를 둘러봤다. 이어 23일 시민서포터즈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화성시장은 참여하겠다고 의사

만 밝히면 된다. 영예로운 2026년 화성습지 세계자연유산 등재, 람사르습지 지정과 인증도시 인증, 이 모든 것이 민선8기에 성취되길 바란다”라고 화성시에 공식 요청했다.

홍성규 후보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화성시의 결심과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올해 9월임을 고려할 때 적어도 6월까지 화성시가 참여 의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6월달이 그냥 지나가면 다시 또 언제 이런 영광스런 기회가 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명근 시장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최영근 예비후보 “교통 격차 해소 전력할 것”



최영근 예비후보.

최영근 화성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화성시정 지역구 공약을 밝혔다.

최영근 후보는 “해당 지역구는 반월동과 동탄1신도시인 1, 2, 3, 5동으로 분리됐다”라며 “현재 가장 큰 시민들의 염원은 교통 격차 해소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GTX-A 조기 개선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탄-인덕원선 역 추가 및 조기 개설, 솔빛나루역 신설, 인덕원선(능동역/메타역) 출입구 추가 신설 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장애인 돌봄 부담을 정부와 함께 하는 정책과 영유아 보육 강화를 위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확보해 줄 것을 약속했다. 청년이 살기 좋은 활기찬 도시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완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의회, 우수조례 선정 2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 ‘쾌거’



김경희 화성시의장, 배정수 의원 등 화성시의회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화성시의회가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2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대내외에 알렸다.

특히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성시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상이라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단체부문 대상은 ‘화성시 수항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다. 조례는 수항미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능력의 소득증대, 관내 생산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다. 전국 최초로 자연녹지, 완충녹지, 공원 등에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차난과 충전기 부족 문제, 부지 확보 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은 단체상 수상소감을 통해 “화성시의회가 2년 연속 기초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돼 시민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기회가 됐다”라면서 “입법 활동을 통해 화성시의회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신 의원들에게 감사사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화성산업진흥원,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본격 육성



제품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최대 4500만원

화성산업진흥원(원장 김광재)이 우수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IP 제품 혁신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제품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중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제품 기획'과 '제품 사업화'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먼저 8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제품화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기술 검증, 기술 권리와 전략 도출 등 '제품 기획'을 위한 비용 500만원을 지원한다. 제품 기획 단계를 마친 후 평가를 통해 우수기

업 3개사를 선정해 시제품 개발, 제품 인증, 권리 확보 등 '제품 사업화'를 위한 비용 4000만원을 후속 지원한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은 "화성시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hipa.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 딥테크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14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화성산업진흥원(원장 김광재)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딥테크 스타트업들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스케일업을 위한 '2024년 화성시 딥테크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초격차 분야의 핵심기술, 제품,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화성시 스타트업에게 시제품 제작 및 설계비용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3년 이내의 화성시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1차 서류심사 후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총 14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시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 모집기간: 2024. 2. 26.(수) 9:00 ~ 3. 15.(금) 16:00 까지
 ● 지원대상: 화성시 소재 업력 3년 이내 스타트업
 ● 지원규모: 14개사 이내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개발비	·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용역 구입 비용 ·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인건비 지원은 별도 신청 가능)
인력사업	· 고용주 지원: 고용주 지원금 (최대 100만원/기업당) · 시제품 설계(CAD) 및 제작, 공학 설계비용 ·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비용

* 본 사업은 예산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 회원가입 및 접수 (<https://hipa.hscity.go.kr>)
 ● 문의처: ☎ 0117-2287 / ☎ 031-377-2287

될 것"이라며 "화성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산업진흥원은 '딥테크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억 8천만원에 지원하고, △매출 5억 1천만원 창출 △신규고용 23명 창출 △신규창업 3개사 △화성시 이전 1개사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사회적경제기업 e-플랫폼 구축·디자인-패키지 시제품 개발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개 분야 5개소 모집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6일 '2024년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e-플랫폼 구축 및 디자인-패키지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대외 홍보 경쟁력을 제고하고,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육성 사업 출신 법인이다.

플랫폼·리플렛 분야, E플랫폼 구축·판로확대 분야에서 각각 2개 분야, 5개소를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플랫폼·리플렛 등 제작 △홈페이지형 블로그 제작 △스마트스토어 디자인 개선 △BI·CI 제작 △시제품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플랫폼·리플렛 분야는 3월 8일

18시까지, E플랫폼 구축 및 판로 확대 분야는 3월 11~4월 5일 18시까지이다. 신청서류는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이영혜 화성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온라인 판로채널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라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주)동부케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사업 전개



재가 장기요양기관 역량 강화 기관 평가 교육 모습.

재가 장기요양기관 역량 강화 교육·간담회 실시

사회적기업 (주)동부케어(대표이사 진락천)는 24일 수원에 위치한 화서다산도서관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종사자 대상 '2024 재가 장기요양기관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원이 지원하고 거점기관(동부케어를 선정해 거점기관이 소규모 장기요양기관(공유기관)의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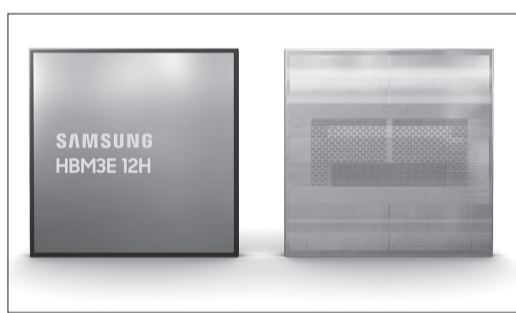
(주)동부케어에서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사업에 관심 있는 예비공유기관 50여곳의 신청을 받아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안내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교육 및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 고시 및 세부사항에 관련한 교육을 제공했다.

교육 및 간담회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교육 및 간담회에 참여할 기관의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파악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간담회를 제공했다. 교육 이후 기관 운영의 어려운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소규모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112 업무스케줄 관리 일정 업무표 제공, 기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 제공, 시설장 및 종사자 월별 교육자료 제공 및 반기별 집합교육을 제공, ERP 전산시스템을 제공해 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주)동부케어 진락천 대표이사는 "종사자분들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사업(031-225-7655)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36GB HBM3E 12H D램 개발



36GB HBM3E 12H D램.

업계 최초, 기존 대비 성능 용량 50% 이상 향상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6GB HBM3E 12H D램 개발에 성공해 고용량 HBM 시장 선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6일 24Gb D램 칩을 TSV(Through-Silicon Via,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로 12단까지

적층해 업계 최대 용량인 36GB HBM3E 12H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HBM3E 12H는 초당 최대 1280GB의 대역폭과 기존 최대 용량인 36GB를 제공해 성능과 용량 모두 전작인 HBM3 8H 대비 50% 이상 개선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Advanced TC NCF' (Thermal Compression Non Conductive Film, 열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기술로 12H 제품을 8H 제품과 동일한 높이로 구현해 HBM 패키지 규격을 만족시켰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휘어진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NCF 소재 두께도 지속적으로 낮춰 7마이크로미터를 구현해 HBM3 8H 대비 20% 이상 향상된 수직 집적도를 실현했다. 특히 칩과 칩사이를 접합하는 공정에서 신호 특성이 필요한 곳은 작은 범프를, 열 방출 특성이 필요한 곳에는 큰 범프를 목적에 맞게 사이즈를 맞춰 적용했다. 크기가 다른 범프 적용을 통해 열 특성

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율도 극대화했다.

또 NCF로 코팅하고 칩을 접합해 범프 사이를 다양하게 하면서 동시에 공극(Void)없이 적층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도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개발에 성공한 HBM3E 12H는 AI 서비스의 고도화로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최고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성능과 용량이 증가한 이번 제품을 사용할 경우 GPU 사용량이 줄어 기업들이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리소스 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배용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실장(부사장)은 "삼성전자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의 고용량 솔루션 니즈에 부합하는 혁신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 HBM 고단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등 고용량 HBM 시장을 선도하고 계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HBM3E 12H의 샘플을 고객사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상반기 양산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경기도 최초의 봉안(납골)전문 재단법인

孝園 효원가족공원

고인의 보관이 아닌 소통을 위한 곳

10년 사용료 **30만원** (관리비 별도)

www.skypark.co.kr

고객과의 약속
마음·정성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 또한 최고의 서비스로 고인과 유가족께 정성을 다하며,
-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1800-2325

향남 하늘가장례식장

(기독교 천국환송 예식 전문)




24시간 상담 및 출동대기 중

☎ 031)366-4444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322

인재육성재단, 교육부 공모사업 2개 선정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동탄서연이음터와 동탄다원이음터 본부는 교육부 주관 '디지털 새싹'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디지털 새싹은 초·중·고등학생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

면 확대 정책에 맞춰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15개 주관기관만이 선정됐다.

임선일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이음터의 특화공간을 활용해 AI와 SW를 대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국적으로 이슈인 늘봄학교 관련해 인재육성재단이 화성시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요에 최선을 다해 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 새싹은 동탄중앙이음터 5층 ICT 특화시설 공간을 활용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특화과정 및 경진대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시나브로 예술학교 등 5개 프로그램을 화성시 관내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누구나 돌봄 서비스 기관, 업무협약



홍노미 화성시 국장이 14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화성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14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2024년 누구나 돌봄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누구나 돌봄사업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고,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시민을 위해 실시된다. △생활 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 보호 5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1인당 연 최대 15일간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화성시는 이 같은 돌봄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공모하고 14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에는 △협약 기간 △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비용 정산 △보안 및 안전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노미 화성시 시민복지국장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민·관이 함께 돌보는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이 돌봄으로 연결되는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 신청은 3월 실시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도교육청, 전국 최초 디지털 소양 교육 자료 개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전국 최초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 소양 교육 가이드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

도 교육청은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과 연계해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별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는 수업 사례 중심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 소양 △디지털 소양 영역별 교과 성취기준 특징 △디지털 소양 세부 요소와 교과 성취기준 연계 분석 △교과별 디지털 소양 교수학습 사례로 구성했다.

국어과 교수·학습 사례는 '전자책 출간을 위한 글쓰기 개요 작성하기'에서 ▲디지털 정보 분석과 표현 ▲디지털 콘텐츠 생성에 대한 소양을 익힌다. 수학과는 '디지털 기반 통계 프로젝트'에 참여해 ▲정보 분석과 표현 ▲디지털 문제해결 소양을 익힌다.

과학과는 '데이터 분석 및 AI 도구를 활용한 재해 재난 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생성 ▲디지털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의 소양을 익힌다.

한미진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모든 교과와 연계된 디지털 소양 교육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디지털 시민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라며 "전국 최초로 제작한 디지털 소양 교육 자료가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디지털 소양 체계를 안내하고 교과별 성취기준에 대한 자료를 개발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소양 체계

화성시체육회 2024년 '쓰리GO' 시행

쓰리GO(걸GO!오르GO!달리GO)사업이 2월 다시 시작된다.

화성시체육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쓰리GO'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으로만 14세 이상이 걷기·등산·자전거 중 한 가지 종목을 선택, 지급기준 달성 시 화성 지역화폐로 받거나 기부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2021년 6만 9000명, 2022년 16만 3000명, 2023년 30만명 등 해마다 참여가 증가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하는 등 호응이 크다.

박종선 화성시체육회 회장은 "화성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화성시 스포츠조례'를 제정하고 일상 속 시민이 스포츠로 삶을 바뀌어나가는 희망 화성 구축에 힘쓰고 있다"라면서 "화성 체육회 또한 시의 정책에 맞춰 쓰리GO사업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스포츠 데이 개념이 자리잡고 건강한 희망 화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 방법은 화성시체육회 홈페이지(<https://hssports.hscity.go.kr/3go/3gonotice/>) 쓰리G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광운)은 22일 2024학년도 화성오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 역량 강화 연수를 슬빛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현직 교사가 아닌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교육지원 활동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면담 기법의 이해와 실제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주제로 실형(실습) 연수가 진행됐다.

함동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가 학생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관의 조사 방법, 조사 보고서 작성법 등 사안 처리의 전문성, 공정성을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원, 지역 의제 발굴

화성시는 2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의원 70여명, 퍼실리테이터, 아동권리 옴부즈스판(아동권리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1차 정책 제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들은 환경·교육·복지·문화 상임위원 정책제안 선정을 위해 화성시의 다양한 가치와 자

원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역사회 현안을 탐색하고, 1차 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아동의원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각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경청하겠다"라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되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민 여러분, 전락작물직불금 신청하세요"

화성시가 쌀 수급, 가격 안정,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5월 31일까지 '2024년 전락작물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락작물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 전락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하면 지급된다.

동절기 식량작물과 동계조사료 재배 시 ha당 50만원이, 하절기 ha당 옥수수 100만원, 두류·가루쌀 200만원, 하계조사료 43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면 ha당 100만원이 추가된다.

신청은 동계작물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출장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월접점을 거쳐 동계는 8월, 하계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석만 화성시 농업정책과장은 "전락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을 통한 쌀 가격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익형 직불금 외에 추가 지급되는 직불금"이라며 "농가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관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생각정리의 강력한 도구 **ThinkWise** 생각을 성과로 바꾸는 기술

MEM: 발상 능력 대시보드: 발상과 실행의 조감 플래너: 실행 능력

www.thinkwise.co.kr

전 세계 1% 핵심 인재를 위한 세계 최고의 마인드맵핑 소프트웨어

싱크와이즈 아카데미 화성공인교육센터 | 010-9245-5787

양방 · 한방 · 치과진료 협진병원

제일요양병원

FIRST GERIATRIC HOSPITAL

031-526-0030

24시간 입원상담가능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990 비전월드빌딩

최혁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선출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2024년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중이다.

화성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2024년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최혁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구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건의, 자문한다.

최혁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비롯해 민·관의 협력을 통해 화성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민·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홍노미 화성시 시민복지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화성시 사회보장 및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포용적 사회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정조효노인복지관-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MOU



복지관과 문화재단 관계자가 지역사회 내 지식 정보격차 해소와 노인독서문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관장 탄하 스님)과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은 23일 지역사회 내 지식 정보격차 해소와 노인독서문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독서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도서기증, 정기적인 상호정보 교류 등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하 스님 정조효노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어르신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이 정보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어르신에게도 균등한 독서문화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화성시 지역사회 내 독서문화 확산을 통해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나눔 실천 '온이웃발굴단' 발대식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정희)은 27일 지역주민과 함께 위기가정발굴과 지원을 위해 구성된 '온이웃발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향순 복지정책과장, 오문섭 부의장, 박진경 경기도의원, 이은진 화성시의원과 지역주민 60여명이 참여했다.

온이웃발굴단은 3월부터 월 1회 단위 거주지역(기배동, 동탄2동, 동탄3동, 반월동, 병점1동, 진안동, 화산동)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더 많은 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문고리 안부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발굴된 위기가구는 복지관에서 상담과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정희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이웃을 위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 참여해 준 단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2024년에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과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온이웃발굴단의 발대식 개최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원들 함께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체육회, 61개소에 생활체육지도자 보낸다

화성시체육회가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새싹속속 지원사업 및 생활체육지도자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 서비스 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시작한다.

사업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주간보호센터,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 61개소를 선정해 실시된다.

새싹속속 지원(유아체육활동지원)사업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아 신체 발달상황을 측정, 그에 맞는 생활체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도를 통해 유아의 성장, 건강,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유치원 21개소, 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 운영된다.

생활체육지도자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 서비스사업은 초등돌봄교실, 주간보호센터, 경로당에서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것이다. 초등돌봄교실 9개소, 주간보호센터 8개소, 경로당 21개소가 선정 운영되며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미디어센터, '똑똑! 마을미디어 클래스' 모집

화성시미디어센터는 3월 4~18일 2024 찾아가는 마을미디어 교육 '똑똑! 마을미디어 클래스' 참여 단체 5팀을 모집한다.

'똑똑! 마을미디어 클래스'는 시민이 직접 지역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하고 지역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마을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지원 사업이다.

참여는 신규 단체 혹은 마을미디어 활동가 양성과정 2회 미만 참여단체만 가능하며, 콘텐츠 제작 교육지원, 제작 활동에 필요한 미디어센터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교육은 미디어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튜브채널(유튜브, 팟캐스트 등) 운영 방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

화성시미디어센터 관계자는 "똑똑! 마을미디어 클래스"를 통해, 시민주도의 지역기반 콘텐츠를 제작할 신규 단체를 발굴하고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손뜨개봉사단, 후원금 전달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손뜨개봉사단은 23일 손뜨개 활동으로 만든 물품 판매를 통해 모은 수익금 400만원을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중학교 입학 예정인 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40명의 생활복 구입비로 사용된다.

이연옥 화성시 아동친화과장은 "손뜨개봉사단의 지속적인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손뜨개봉사단이 물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4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주)에이치앤에스그룹, 취약계층 아동에 세탁기·건조기 기탁



(주)에이치앤에스그룹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물품 900만원 상당을 화성시복지재단에 기탁하고 있다.

(주)에이치앤에스그룹(대표이사 오용석)은 26일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를 위해 900만원 상당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에 기탁했다.

기탁물품은 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용석 (주)에이치앤에스그룹 대표이사는 "평소에도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에 관심이 많았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다"고 전했다.

고원준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좋은 기회를 통

해 에이치앤에스그룹이라는 기업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후원 이외 취약계층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성시의 파트너로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에이치앤에스그룹은 화성시에 위치한 기업으로 세탁 장비 시스템 제공, 버블맨24셀프빨래방 창업, 바리스타 밴딩머신 무인카페 창업, 버블커피 카페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제이드, 어르신 세무상담 서비스 앞장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관장 탄하 스님)과 세무회계 제이드(대표세무사 유지명)는 27일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한 전문 세무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회계 제이드는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통해 직접 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적인 상호정보 교육 및 적극적인 협업을 약속했다.

탄하 스님 정조효노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세무상담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접근성과 비용 문제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이 정보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전문적인 세무상담 서비스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유지명 세무회계 제이드 대표세무사는 "복지관과 협약으로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화성시 관내 세무 정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2024 동탄중앙 마을학교 수료식



2024 동탄중앙 마을학교 겨울학기에 참여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진행하고 있다.

동탄중앙마을학교는 관내 초등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 동탄중앙 마을학교 겨울학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동탄중앙 마을학교는 방학 중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수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다.

이번 마을학교는 19~23일 5일 동안 진행된 것으로 초등1~2학년 과정, 초등3~4학년 과정으로 나눠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배이팅 킴업사이클링 △스포츠 △공예 등 10개 강좌와 동탄중앙이웃터 특화분 야인 △ICT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들이 방학 중에 비슷한 또래인 동네 친구들과 학습 위주의 공부보다 새로운 체험 활동을 하며 친해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마을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임선일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동탄중앙 마을학교가 마을 주민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선순환 구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서연이음터도서관, '어서와! 학교는 처음이지?'



예비 초등학생과 예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화성시립 서연이음터도서관은 새 학기를 맞은 예비 초·중학생을 위한 '어서와! 학교는 처음이지?' 프로그램을 19~23일 5일 동안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4년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 학교생활 및 환경에 대한 교육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예비 초등학생 대상 학교 생활, 규칙 배우기, 책가방 챙기기 등 '첫 출발! 우리들은 1학년'을 △예비 중학생 대상으로는 '궁금하니? 알려주세요! 중등생활'을 통해 수행평가, 자기주도학습, 진로 설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한 학부모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에 앞두고 적응 문제로 걱정이 많았는데, 아이가 학교생활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THE CEO Interview

김 송 환 (주)화신페이퍼텍 대표

‘따뜻한 생각 행복한 우리’

37년 제지포장업 외길 인생

팔탄면에 위치한 (주)화신페이퍼텍은 골판지 박스를 메인으로 컬러 박스, 농산물 박스 등 각종 박스를 제조, 공급하는 박스 전문기업이다. ‘따뜻한 생각 행복한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착한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임직원 모두 함께 즐거운 관계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당진에는 자매회사 (주)화신페이퍼가 있다.

2005년 11월 9일 창업 후 앞선 기술 개발과 투자로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제지포장업 37년의 외길을 걸어온 김송환 대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3도 인쇄기계, 톨슨 기계, 자동클로아스테칭 기계 등 박스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들을 보유, 매일매일 체계적인 수발주 계획 수립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도 가능하다. 공장에서 포장박스를 생산, 전용 차량 배송으로 납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한다.

영업으로 날개를 달다

김 대표는 1987년 대양제지에 입사했다. 처음 QC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영업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종이의 품질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영업 초창기에는 마이너스가 됐다. 종이에 대해 너무 잘 알기에 소위 영업 멘트를 함부로 날리지 못하는 것이다.

차츰 영업에 적응하면서 거래처와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며 뛰어난 실적을 보여 빠르게 진급했다. 특히 주요 거래선의 야유회, 창립 기념일 등 회사 행사에 적극 참여와 통근 찬조를 하는 등 고객들의 입장을 즐겁게 해 주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본인 부서에 명문대 출신 직원을 배치해 본인이 부족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등을 맡겼다. 거래처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아 소통이 잘 되는 김 대표와 자료 분석 및 작성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직원들과의 시너지 효과로 항상 실적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뛰어난 영업실적으로 대양그룹에서 회장, 부회장의 총애를 받아 직급에 상관없이 영업상 필요한 일들에 대해 많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실적이 따라주니 회사 상사들도 콕콕 밀어줬다. 법인카드도 2개를 받아 필요한 대로 마음껏 사용했다. 주위에서 눈치를 즐라치면 당시 부회장이 “깡 잡는 게 매”라며 방패막이가 돼 주었다. 월급보다 몇 배나 많은 활동비를 마음껏 쓸 수 있었다. 자신감 뽐뿌이었다. 임원들도 회장, 부회장 결제를 맡기 어려운 것은 김 대표 책상에 올려놓았고, 회장, 부회장은 김 대표가 가져오는 결재 서류는 얼굴만 보고 사인할 정도였다.

제지포장 박스 창업

2005년 오토 2세들이 입사하고 스펙과 능력에 한계를 느끼면서 김 대표는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에서는 계속 근무하라며 사표 수리를 해 주지 않다가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사표를 수리해 주었다. 회장은 사표를 수리해 주면서 “자네는 뭐든 잘 할 수 있을 거야”라며 응원해 줬다.

김 대표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40대 중반에 임원을 역임하고 회사를 차려서 내 사업을 해보는 것이 꿈이었다. 당시 선배들은 ‘나중에 남는 것은 사람’이라며 주위 사람들과 척지치 말고, 내 사람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주위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마음에 새겨 늘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덕분에 사업을 하며 급속한 성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견실한 운영을 할 수 있었다. “어음 받지 마라”, “한 집에 10% 이상 몰빵하지 마라”, “가까운 곳에 있는 거래선을 찾아라”, “손가락을 빠는 한이 있더라도 싸게 팔지 마라. 절박하면 뛰게 돼 있다”, “큰 곳에서 기웃거리지 마라” 등의 조언이었다.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아내와 직원 둘이서 낮에는 납품하고 밤에는 같이 박스를 만들며 고생한 끝에 3년 정도 지난 후에야 손익분기점이 나오고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업을 시작하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직원들 월급과 거래처의 결제는 제때 해 주겠다고 다짐했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쯤 지나니 퇴직금으로 버티던 자금이 바닥났다. 자존심 때문에 가족들에게 손도 벌이지 못하고 의왕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바꾸면서 직원들 월급과 결제 대금으로 사용했다. “내 이름을 걸고 거래처 결제, 직원들 월급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미분 적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했으니까요”라며 치열했던 옛날을 회상했다.

내 자신의 사고 깨는 것이 가장 힘들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을 묻자 “저는 제 사고를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많은 것을 누렸잖아요. 차 달라고 그러면 차 주고, 월급 100~200만원 할 때 법인카드도 400~500만원 썼는데, 그뻐 고객들과 식사를 해도 최고급 집에서 하고, 술을 마셔도 양주를 마시는 것이 일상화 돼 있었어요. 우리 사주 공개할 때도 실권주들을 더 사서 몇 배로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 돈에 대해 별 아쉬움이 없었지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아빠는 입이 명동’이라고 합니다. 서산 촌놈이 입만 고급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20년 동안 몸에 배어 있었는데 내 사업을 차리니 까 전부 제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월급도 못 갖고 가던 시절인데 어디 가서 찬조하면 수십만 원씩 대기업 수준으로 찬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깎뚜기에 국밥이라도 하나 먹으면 다행인데 여전히 고급 고깃집에 가서 먹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바꾸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출근하면서 잠자고 있는 집사람과 아이들을 보면서 순간 현실감이 확 들더라고요. 이렇게 헤서는 안 되겠다고 깨달았어요. 이때부터 제 처지에 맞게 씬씀이를 줄일 수 있었지요”라며 스스로의 인식 바꾸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기술영업으로 견실한 성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5년간은 적자 내지 자라매김. 이후 5년에서 10년간은 한 번도 적자 안 나고 조금씩 꾸준히 성장했어요. 불륜을 수십 배 이상 키울 수 있었던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매출 규모보다는 영업 이익률이 좋은 기술 영업을 했지요. 영업사원 없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6~7곳의 외국계 회사들과도 꾸준한 거래를 할 수도 있었지요. 종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견고하고,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제안을 하면서 신뢰를 얻었죠”라고 느리지만 견고한 경영 방침을 설명했다. 이런 제지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아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커피숍에서 플라스틱 1회용 빨대 대신에 사



용하는 종이 1회용 빨대를 개발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종이를 만들면 물에 불려지는 게 단점인데 종이에 다시마로 만든 풀을 이용해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물에 금방 풀어지는 단점도 개선한 특허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제지포장 사업은 이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면 먹고 사는 것은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최근 100년 동안 종이 사업은 마이너스 된 해가 없었어요. 1인당 종이 소비량이 선진국의 척도인데 100년 동안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R&D 아니고 허드렛일 같지만 제가 머리가 비상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이 사업이 딱 맞아요”라고 자신했다. 김 대표가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그의 부친은 경주 김씨 집성촌이었던 서산시 음암면에서 농사를 짓다가 당진으로 이사해서 조경사업을 했다. 2005년도 김 대표가 사업자 등록을 내던 해에 부친께서 재능기부로 당진경찰서 조경을 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는 김 대표가 어릴 때부터 “혼자 밥 먹지 말아라”, “어디 방문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김 대표는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면 서산에 있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다.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달려간다. 가서 “아버지, 셋째 왔어요” 하며 절하고 한참을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오곤 한다.

이상하게 아버지 묘소에 찾아가 대화를 하고 온 다음 날이면 뜻하지 않게 일이 술술 풀릴 때가 많았다. 한번은 급하게 5000만원이 필요해서 꿈꿨고 있었는데, 아버지 묘에 다녀온 다음 날 김 대표의 얼굴을 본 지인이 “송환아 너 뭐 일 있어? 사업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돈 없으면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내 돈 갖다 써. 한 1~2억이야 못 주겠냐”라며 격려해 주었는데, 다음 날 거래처에서 예산치 않았던 선결재를 해 줘서 해결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입사 10년째 되던 해, 회사에서 모범사원으로 뽑혀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이때 좋았던 경험은



있어서 1년에 두세 번은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본인에게 약속했다. 박람회, 전시회 등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받은 건문을 넓히려는 목적, 반은 힐링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다녀온다. 덕분에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다. 특히 내공과 여유, 자긍심이 느껴지는 영국을 좋아한다. 고풍스럽고 오래된 집들에 담쟁이들이 편안하게 어우러져 있는 비버리 마을은 안정감이 있고 역사가 느껴져서 김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2025년에 맞이하는 회사 설립 20주년에는 전 직원 및 직원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는 김 대표의 얼굴에 미소가 감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삶

김 대표는 ‘남을 즐겁고 유익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사업 초창기 운영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던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아내와 더불어 Save The Children에 매월 기부를 지속해 왔고, 화성시세마을경제인협의회를 통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지속해 왔다. 화성시

세마을경제인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화신페이퍼텍의 슬로건은 ‘따뜻한 생각 행복한 우리’이다. 직장생활 할 때 ‘따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더라’라는 것을 느껴서 다 같이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회사 탐자에 직접 이 문구를 썼다. 회사 로고도 김 대표가 직접 구상해서 만든 것이다. 예술적 DNA가 느껴진다. 추사 김정희의 후손이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

젊은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청하자 “자기 개발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고, 멈추는 것은 결국 도태된다는 것이다. 또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주문한다. 너와 내가 함께하면 우리가 되고, 우리가 같이 가면 동행이 되는 것처럼 세상은 혼자 갈 수는 없다. 더불어 사는 삶, 욕심내지 않고 주위 이웃들과 서로 배풀면서 채워가는 삶을 추구하는 김 대표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려 모두 행복한 모습이 되길 기대한다.



화성시 AI 민원상담,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



선진화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

화성시가 26일 인공지능 기반(AI) 민원상담 서비스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상담품질 제고를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상담 콜센터에 민원상담 전용 '인공지능(AI) 챗봇'과 초거대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공지능 챗봇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세정 △교통 △차량 △일반행정 △문화·관광·체육 △환경 등 8개 분야 260여개 항목 민원을 24시간 쉽고 빠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과 상담 분야로 사용자의 호평을 받으며, 이용 건수도 증가 중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성과에 따라 1월에는 김포시청이, 2월에는 경주시청이 화성시를 방문해 챗봇 서비스 구축과 운영에 대해 벤치마킹했다. 타 지자체의 관련 전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축한 '민원상담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달 서울시 120다산콜 재단이 직접 방문해 구축과 운영 관련 사항을 벤치마킹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민원상담의 디지털 전환으로 다양해지는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에게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AI 챗봇 서비스 분야를 점차 확대하고, 상반기 중 민원상담 AI 어시스턴트 서비스의 민원 답변 정확성과 신뢰성 검증을 거쳐 현장에 적용해 민원상담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행복한 노후 생활 '인생노트·웰다잉 문화활동가' 사업 추진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2024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과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어르신들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년준비 프로그램이다. 자신만의 인생노트를 작성하고,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은 2022년 양성

한 웰다잉 문화활동가와 추가 양성을 통해,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진 장사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으로 △화성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마음결 자서전학교) △화성남부노인복지관(인생결자-결어온 삶이 작품이 되다) △화성서부노인복지관(행복한 삶의 기록 '해피 엔딩') △화성동탄노인복지관(인생여정 제

작소) 4개소를 선정했다.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 수탁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열린공동체 다원이다.

홍노미 화성시 시민복지국장은 "인생노트 사업 및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죽음에 대한 어르신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년의 삶에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여성새일센터, 회계경리 실무과정 교육생 모집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화성여성새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 '회계경리사무원 실무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과정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엑셀, 회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다. 수료 후 회계·경리·총무 등 사무 관련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강생 모집은 3월15일까지로, 교육 일정은 남양읍 소재 모두누리센터에서 4월 2일부터 6월 4일 하루 4시간씩 총 1723시간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 조건은 회계경리사무원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 수료생은 구직정보,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과 새일여성인턴제도 참여 기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화성여성새일하기센터 홈페이지(<https://www.hswf.or.kr/womanjob>) 열린마당 공지사항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 후 3월15일까지 saei@hswf.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031-350-4353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유소년 스포츠 교실 성료

검도, 배드민턴, 소프트테니스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은 1월 4일~2월 28일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유소년 스포츠 교실을 진행했다.

스포츠데이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유

소년 스포츠 교실은 매주 2회씩 총 8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의 체육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 직장경기운동부 선수단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기초적인 기술부터 응용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또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들은 "화성시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소방서, 외국어 버전 소방안전영상 홍보

화성소방서는 지역 사회에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외국어 버전의 소방안전영상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기존의 영상을 활용한 홍보를 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외국어 버전의 영상을 활용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의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영상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옥내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 등이다. 해당 영상은 화성소방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게시돼 있다.

고문수 서장은 "외국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오산소방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안전컨설팅

오산소방서(서장 정찬영)는 27일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한국병원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한 의료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오산소방서는 이에 따라 시민 불안과 의료안전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이송, 의료지도 등 원활한 119구급활동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날 오산소방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의한 시민 생명 위협이 없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 나섰다.

한국병원은 "5명의 응급실 의료진 확보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영향없이 초기 응급처리 및 경증 환자 입원과 진료가 가능한 상태"라며 "119구급대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정찬영 오산소방서장은 "어려운 환경 속



오산소방서 정찬영 서장 등 관계자들이 한국병원을 찾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에서 도민의 생명 수호를 위해 물심양면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 및 지역 의료기관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상위 행정기관 및 주변 소방관서들과 대책 마련 건의 및 긴밀한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육성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협약



세 기관 관계자가 관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서연이음터와 다원이음터분부는 27일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윤정 서연이음터본부장, 장미 다원이음터본부장, 백중하 화성시청소년상

담복지센터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의 연계 운영 및 정보교류 △위기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 연계 활동 △학부모 고민상담 △멘토링 지원 활동 등에 대한 상호협력 약속했다.

특히 서연이음터분부는 3월부터 협약 기관과 연계해 '들어와 들어줄게' 고민 우체통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음터 내 설치된 우체통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고민 접수 후 부모포대상담자를 통해 고민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선일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음터 자원을 활용해 관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출·퇴근 버스 전문회사

국내여행 통근, 셔틀, 회사워크숍, 결혼식, 기차여행, 섬여행 등

해외여행 골프, 신혼여행, 가족여행, 단체여행, 배낭여행

클로버기획관광(주)
한진관광 화성중앙점

여행 사업부 | 031-224-8200
전세버스사업부 | 031-222-7474
무료전화 | 080-555-2227

위치: 화성시 병점 중앙로 155, 렉스몰 301호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전문 개발·제조회사

(주)인천이피에스

중간 소음재

친환경 생분해 제품

EPS (스티로폼)

EPP (재사용 BOX 제품)

(주)인천이피에스 화성공장

(주)경인이피에스 오창공장

(주)경인이피에스 진천공장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안요골길 50(오리) T 031-359-9011~4 / F 031-359-9015 www.iceps.co.kr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총 219억 투자해 1726세대 지원



LPG공급체계도.

경기도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파주, 이천, 여주 등 10개 시군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LPG를 용기로 공급받는 개별배송방식에서 마을단위 집단공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도시가스가 공급

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30~150세대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고 LPG용 가스보일러, 가스계량기 등 부대 시설을 설치해 준다.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연료비를 절감시키고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부호스, 노후배관 등 가스 부대시설 철거, 교체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있다.

도는 2015년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약 130개 마을 7700세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도비 80억원을 포함한 2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726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한 지역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해소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연료비 절감과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경기도의회 Point

교행위, 화성 장안초 등 모듈러 교실 확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화성시 장안초등학교를 찾아 모듈러 교실 현황을 직접 살폈다.

층간·벽간 소음·안전 최우선 고려 당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과밀학급해소, 공간혁신 사업 등 다양한 사유로 증가하고 있는 모듈러 교실 환경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완료된 화성 장안초등학교, 시흥 소재중학교, 용인 풍천초등학교를 23일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모듈러 교실 설치 업체에 "모듈러 교실의 내진, 내화, 단열 등 법적 기준 준수와 모듈러 교실 설치 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면서 "층간·벽간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새로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와 유해물질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

해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모듈러 교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는 "과거 열악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다른 모듈러 교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추후 진행되는 사업 대상교의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을 감소시켜 달라"라고 요청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기존 학교 건물에 비해 임시로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생 학습권 침해에 취약함을 보여 학생·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면서 "설치 시 안전성과 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공간 맞춤형 설계와 양질의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듈러 교실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깨끗한 해안 위한 '경기바다 함께해(海)' 업무협약

궁평 솔밭 해수욕장 등 청소활동 펼쳐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콘텐트진흥원, 경기도청소소년수련원 등 5개 공공기관과 경기바다 함께해(海) 업무협약을 추가 체결했다. 이로써 '경기바다 함께해(海)'에 참여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은 2023년 11개에서 올해 16개로 확대됐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활동 대상지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화성 궁평 솔밭 해수욕장, 안산 탄도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 김포 대명항 등으로 참여 공공기관은 항포구와 해안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청소활동을 한다.

협약기관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 4회 이상 총인원 1100명을 동원해 해안가 청소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정책수립, 참여기관 평가, 우수참여 기관 포상, 홍보방안 마련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등 연안 5개시는 활동대상지 지정 및 관리,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등 공공기관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도자재단 등 16개 기관은 자발적 해안가 청소활동, 활동사항 홍보, 실적 보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환경보전과 공공기관의 사회·환경적 역할을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으로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로 깨끗한 경기바다를 알리고 해양환경 보전에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경기바다 함께해(海) 참여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해안 청소 중이다.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11개 공공기관 825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 44톤을 수거했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도시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효숙)는 28일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청 여성가족국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축소, 지연되거나 확대, 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효숙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보육, 교육기관의 일원화가 아닌 영유아 중심

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이라며 "극심한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자체 특성을 살린 유보통합 활동이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의 취약 기능을 보완하고 학부모 이용 불편을 해소하며, 추후 국가 차원의 유보통합 기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 구성됐다.

경기도, '360° 어디나 돌봄' 서비스 본격 시작

경기도가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360°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하면서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기관중심 돌봄형 9개소, 기관중심 프로그램형 15개소, 자조모임 자율형 16개소 총 40개 기관을 선정해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기관중심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제공

하면서 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문화·여가 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B형 기관중심 프로그램형은 문화·예술(뮤지컬, 합창단 등), 체육(농구, 볼링 등), 심리상담, 재활치료, 가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C형 자조모임 자율형은 근로 등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대에 자조모임이 어려운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운동, 도예 등 취미 공유 및 취미활동을 하며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줍

깁 배드민턴 활동 등을 지원한다.

도는 선정된 40개 기관에 유형별 최대 1억원, 총 사업비 21억원을 도비 100%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선도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성공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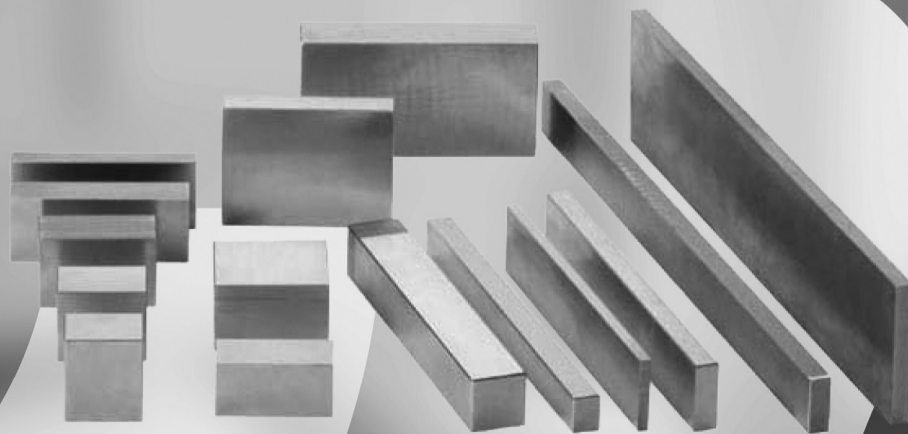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거주 지역과 가까운 선정기관에 문의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 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031-299-5011/5012)로 문의하면 된다.

규격소재 정밀생산전문업체 (주)성화에스티

www.seoungwhast.co.kr

차별화된 성화에스티만의 기술력! 더 나은 품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생산품목
- 철판 규격 제품(S45C, SS400)
 - 스테인레스 제품(SUS304)
 - 알루미늄 제품(AL6061)

- (주)성화에스티(문래) T02-2635-7461 F02-2635-7463
- (주)성화에스티(시화) T031-498-5581 F031-498-8849
- (주)성화에스티(부천) T032-676-7550 F032-676-7450
- (주)성화에스티(화성) T031-354-9047 F031-354-8730
- 성화에스티(주)(남동) T032-822-6207 F032-822-6209
- 주식회사 석운(전라 광주) T062-962-5571 F062-962-5573
- 진원철재(경기 광주) T031-767-7043 F031-767-4855
- 노블금속(구미) T054-463-5202 F054-463-5204
- (주)성화에스티(군포) T031-457-7844 F031-458-2500
- 성화에스티 시흥점(시흥) T02-2625-0214 F02-2625-0216

- (주)성화스틸(수원) T031-221-8091 F031-221-8093
- 성화에스티 대구대리점 T053-351-7876 F053-351-7871
- 토탈정공(부산) T051-315-1262 F051-315-1264
- 우진정밀(서인천) T032-589-4765 F032-589-4764
- (주)성화에스티(창원) T055-607-0900 F055-607-0902
- (주)대성스틸(창원) T055-607-0701 F055-607-0703
- 성화에스티 대전대리점 T042-934-7720 F042-934-7721
- 성화에스티 천안대리점 T041-584-2530 F041-584-2532
- 성화에스티 울산대리점 T052-295-2411 F052-295-2413
- 성화에스티 평택대리점 T031-668-5942 F031-668-5941

- (주)성화에스티(호남) T062-959-9888 F062-959-9886
- 동산테크(주)(아산) T041-531-1884 F041-531-1886
- 명성정밀종합상사(청주) T043-268-3624 F043-268-3606
- 성화에스티 김포대리점 T032-677-3410 F032-676-3415
- 성화에스티(성수) T02-498-6002 F02-498-6003
- 성화에스티(부산 판매) T051-301-7055 F051-301-7056
- 성화에스티 광주(경기 광주) T031-766-7377 F031-764-5225
- 성화에스티 김해대리점 T055-346-5845 F055-346-5846
- (주)대성스틸 함안대리점 T055-583-0781 F055-583-0770
- 성화에스티(포천) T031-544-8365 F031-544-8366



시로 읽는 화성 9



휘민 시인/화성작가회의 사무국장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먼 타인

- 박소원의 '동탄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지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장소들과 만나고 자기만의 장소를 소유하며 살아간다. 이때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생활세계는 현존재의 구성 요소이자 터전이 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는 그가 태어나고 성장해 온 경험세계의 누적된 총체이자 그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온 근본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가 고향을 존재의 근저이자 근원에 가까운 곳이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부침이 잦다. 한 곳에 진득히 머물기보다 여러 도시를 떠돌며 살아가기 바쁘다. 그들엔 '우리'보다는 '나', '함께'보다는 '혼자'가 익숙하다.

눈[雪]을 맞으며, 반듯한 신도시 길을 걸으며 내가 걸은 모든 길들 눈 속에 묻어 둔다 가슴 아픈 소식들 죄다 눈 속에 묻어 둔다 길에서 나는 소리들 눈의 아픔이 되도록

이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발자국을 따라 눈과 발과 옛 집터와 옛사람들 있고 살자는 말, 참 낭만적인 말들

방향 많은 바람을 따라 걷다 보면 방향이 많은 도심(都心)에 이르면 문득 사라진 시간들, 얼굴들 눈발들 내 발 밑에서 뾰드득 뾰드득 눈의 신음 소리가 된다

타지에서 흘러온 이웃 사람과 매일 눈[目]인사를 나누며 발랄하게 스쳐가지만 이 길 위에서 나는 당신이 늘 모르는 사람이다 당신도 늘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눈이 내리는 날 화자는 홀로 "반듯한 신도시 길을 걸으며"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들"과 "가슴 아픈 소식들"을 눈 속에 묻기로 한다. 그러나 잊으려 할수록 더욱 또렷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리웠던 지난날의 기억이다. 길이란 통상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물리적인 장소지만 화자에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바람에 어지럽게 흩날리는 눈을 맞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화자의 발걸음은 "방향이 많은 도심(都心)"에 이른다. 길은 사방으로 뚫려 있지만 마음 둘 곳 없는 화자에겐 신도시가 눈에 설기만 하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동탄에서 산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곳이 진정한 삶의 장소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화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시간들, 얼굴들 눈발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타지에서 흘러온 이웃"들과 매일 인사를 나누어도 왜 나와 당신은 가까워지지 않는 것일까? 영어에서는 'I see'가 곧 'I understand'라는 의미이지만, 발랄하게 눈인사를 나누어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너무 먼 타인이다. 내가 당신을 모르듯 나도 당신에게 늘 모르는 사람이다.

전문가 칼럼 화성춘추(華城春秋) ... 226 너무나 빠른 말, 아이는 부모를 닮는다



하수연 장안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교육학박사

아이들은 부모를 닮는다. 외모는 물론 생각과 행동까지 닮는다. 빠른 말(truism)이다. 그럼에도 부모는 곧잘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하소연에서 부모의 기억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아이가 자기 아빠를 닮아 조목조목 끼어들어요. 엄마인 저는 물론 시댁, 친정 부모의 행동마저 간섭해서 미치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아이가 자기 아빠 닮아 너무 까다롭다고 했더니, '필요할 때만 말하는 자기 아빠만 닮으면 다 행인데, 말 많은 너까지 닮아 더 걱정이다'라고 하셔서 더 속상했어요." 아이의 행동은 누구의 영향일까? 흔히 발달은 유전과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니 일부는 부모 책임이고 일부는 환경의 책임이라 생각하기 쉽다. 이에 부모는 아이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유전보다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특히 5세경까지의 아이에게 부모는 100% 유전자 환경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행동은 100% 부모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아이는 가능성인 잠재능력은 대단하지만 아직

무능력하다. 아이에게 부모는 애착의 대상이다. 일상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모든 말과 행동은 성격의 영양소가 되어 아이의 행동이 되며, 반복되어 습관으로 나타난다. 습관은 굳어져 변하기 어려운 성격으로 형성된다. 화분 분재사가 어린 가지를 강한 철사로 고정하여 원하는 형태로 만들었으나, 이후 이미 굳어져 버린 가지를 변화시키려면 어려움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오히려 그 생명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 부모의 무의식적 행동은 강한 철사처럼 아이의 행동을 습관화시킨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저술한 스티븐 코비(Steven Covey)에 의하면 습관은 중력이다. 중력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넓게, 강하게 작용하는 것과 같이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장악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인생의 모든 차이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형성된 습관이 가져온다고 말했다. 맬컴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은 아웃라이어(outlier: 뛰어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제1요인은 천재적 재능이 아니라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습관의 노력이라고 했다. 이는 학습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습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여기서 습관은 삶의 성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습관화'가 되면 의식적이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습관화된다는 것은 두뇌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생

각(사고)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마치 초보운전자보다 운전이 익숙한 사람은 운전 기술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도 주변을 살피면서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흔히들 좋은 습관, 고쳐야 할 습관으로 이야기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 또한 두뇌를 쓰지 않고, 생각없이 행동하게 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매우 빠른 말이지만 어렸을 적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미 두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충분한 에너지로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는 누구에게나 한정된 하루 24시간을 효율적으로 확장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무의식적 행동을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될 수도 있다. 부모는 성인이다.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강한 의지는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의 추진력처럼 중력을 벗어나 우주의 자유를 누리는 기회를 가지게 만든다. 때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아이가 태어났지?', '도대체 누구 닮았지?' 하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부모 자신의 행동부터 반성해 보아야 한다.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부모를 닮지 않은 아이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습관을 망각한 자신의 기억력을 짚어보고 중력을 벗어나 강한 의지를 발휘해 보는 부모가 되어 보자

syhaaa@hanmail.net

특별기고



손세제 철학박사, 결성향교 선비문화학교 교장

제노사이드(genocide)는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힘은 가치의 법칙[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자본주의 발전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재고의 증가, 원자재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이윤 감소 등등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3의 시장 개척, 곧 식민지 확보 경쟁이 일어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3세계는

제노사이드의 교훈 ①

가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자재의 무제한적 수탈, 생산품의 강제적 공급은 당사국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왔다. 제국주의는 이를 물리적 강제에 의해 해결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제3세계에 대한 탄압과 학살이 일어났다. 당시 제국주의는 '민족(유월)주의'라는 외피를 두르고, 약육강식은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이라고 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제3세계 수탈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면서 "제3세계는 야만, 미개, 미개 사회이다. 이들을 계몽하는 것은 신을 향한 신성한 의무이다." 이것은 유럽 중심적[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다.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미개한 사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또한 1885년을 계기로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했다. 제1차 대전은 이에 대한 저항과 그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지금 제3세계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제국주의가 저질렀던 방식을 좇아 근대화=자본주의를 서두르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전 세계는 단일 시장 경제에 편입되어, 모든 나라가 가치의 법칙 지배를 받게 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기업과 정치[국가]가 결합되어 한바탕 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같은. 자본주의=제국주의=가치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때가 되면 서구 자본주의=제국주의는 과거에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각종 도덕적 도구들을 내세우며,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를 압박하며 자기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들 것이다. 지금도 그들은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정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 연합의 각종 기구들과 국제 무역 관련 기구들을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향후 산업이 더 발달하면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압박과 강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대리운전만 이용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중물대리. 마중물대리는 수익금의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합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5인 이상 중소기업 법인 후불 대환영! 1661-0021

화성신문 문화사랑나눔.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공제 대상자. 후원방법. 화성신문 구독후원계좌 농협 351-0076-7779-73

조영호 교수의



직원을 지도하는 두 방식: 피드백과 피드 포워드



조영호
아주대학교 명예 교수

초등학교 4학년 영희는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영희 할머니는 자상한 성격이어서 영희가 학교 갈 때면 여러 가지를 챙겨준다. “영희야, 준비물은 챙겼어? 오늘은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 꼭 가져가.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꼭바로 대답하고, 애들하고 싸우면 안 돼. 웬만하면 네가 다 양보해. 그리고 차 조심이야. 횡단보도에서는 좌우를 살펴야 해.” 이렇게 말이다.

그런데 이런 육아 스타일에 대해 영희 아빠는 불만이 많다. “아머니, 그냥 영희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아니 준비물 안 가져가면 자기가 혼날 데고, 우산 안 가져가서 비도 맞아 보고 해야 제가 정신 차리지요. 미리미리 어른이 다 해주면 안 돼요. 자기가 몸으로 겪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교육이란 말이예요.” 영희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영희 아빠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다루는 스타일도 같은 스타일이다. 직원들에게 일을 맡긴 이후에는 특별히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것 없이 직원 스스로 일을 해나가게 한다. 하지만,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지게 평가하고 매섭게 지적한다. 그는 아이나 어른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나 일이 끝난 다음에 지적하거나 정보를 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피드백(feedback)이라고 한다. 반면에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정보를 주거나 조언, 당부하는 것을 피드 포워드(feed forward)라고 한다. 어떤 리더는 피드백을 주로 사용하고 어떤 리더는 피드 포워드를 주로 사용한다. 물론 둘 다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영희 할머니는 다분히 피드 포워드 방식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영희 아빠는 피드백 방식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직원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직원이 일을 잘 모르거나 어려워할 때는 피드 포워드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 어느 정도 일을 알고 있고, 능력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지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데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피드 포워드 방식보다는 피드백 방식을 권장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권한 위양, 자율 경영 그리고 임파워먼트가 모두 그런 개념들이다.

인간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계의 제어 방식도 마찬가지다. 길거리 교통 신호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파랑, 노랑, 빨강, 좌회전 신호 등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는 방식이다. 통행량을 예측하여 색깔별로 간격이 정해 있다. 좌회전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빨리 나오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좀 천천히 나온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시간 교통량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일단 좌회전 신호 간격을 짧게 해 놓으면, 특정 시점에 좌회전 차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둘째는 신호등에 센서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측정하여

그 상황에 맞게 신호등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좌회전 차량이 늘면 좌회전 신호를 빨리 주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몰리면 횡단보도 파랑 신호를 빨리 그리고 길게 주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이 피드 포워드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이 피드백 방식이다. 피드 포워드 방식은 사전에 예측하여 신호를 통제하는 것이며, 피드백 방식은 현재의 상태나 결과를 감지하여 이를 신호 통제로 반영하는 것이다. 피드 포워드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피드백 방식이 훨씬 고도의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드백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고 경제적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시스템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피드 포워드에 대해 소홀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드 포워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경향이 생겼다.

리더는 피드백도 잘해주어야 하지만, 피드 포워드도 잘해야 한다. 피드 포워드를 한다고 해서 영희 할머니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기를 떨어뜨리는 잔소리가 된다. 피드 포워드를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직원이 스스로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하고 동기를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피드 포워드는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직원에게 질문을 하여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코칭 행위이다. 그래서 일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에 대한 맥락이나 일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좋다. “오늘 고객 만남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식으로 말이다.

choyho2@naver.com

사설

지질명소 인증, 끝이 아니다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우음도, 전곡항 충상응회암, 제부도, 백미리 해안, 공평항, 국화도, 입파도 총 8개소인 화성 국가지질공원이 지질명소로 인증받은 것은 화성시 서해안의 가치를 다시 한번 명백히 입증받은 것이다.

환경부가 운용 중인 국가지질공원(National Geopark) 제도는 지질 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는 것이다. 기존 국립공원,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등과 다르게 행위를 제한하지 않아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활동이다.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이를 브랜드화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서해안을 미래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화성시로서는 더 없이 소중한 일이다.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한반도 가장 북쪽에서 산출되는 백악기 최대 공룡알 화석산지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코리아케라톱스 화석엔시스라는 국내 유일 각룡류 골격 화석을 보유하고, 선캄브리아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전 지질시대의 다양한 특징 관찰이 가능한 소중한 지질자원이다. 이곳을 찾는 이는 우음도 습곡구조, 제부도 매바위, 백미리·공평리 꽃다발 구조, 해식동굴에서 선캄브리아시대를 관찰하고 입파도, 국화도 구상구조에서는 고생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공룡알 화석산지, 전곡항

충상응회암에서 중생대를 공평리, 백미리 사빈과 갯벌을 찾으면 원시의 모습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원시 시대를 관찰하는데 국내 그 어느 곳보다 편리하고 유용하다. 화성시는 이 같은 천혜의 자원을 이용해 공룡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해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으로 지속가능한 화성시의 토대로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인근 화성습지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오는 5월 31일 화성시 주관의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화성습지 세계자연유산 등재 계획을 공식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화성 국가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이 된 화성습지, 남양 당성 등을 연결하면 화성시 서해안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을 함께 갖춘 관광특구로 우뚝 설 수 있다. 지질명소 선정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화성시 서해안 개발에 전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소중한 화성시 서해안으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려고 꿈을 부리고 있는 수원시의 의도를 물리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을 달성하며 메가시티로 성장하는데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이제 지속가능하고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살아 숨 쉬는 대포도시 화성시로 한 단계 성장하는가는 서해안 개발에 달려 있다.

정범길의 케어 이야기



정범길
온암터치협동조합 이사

우리 사회에 돌보는 사람들이 왜 부족한가를 함께 고민해 본다.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위한 지원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은 임신부가 출산 후에 산

돌보는 사람들이 왜 부족한가?

모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산모와 신생아가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머무는 장소이다. 이곳에서는 먹고 자는 생활공간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산모 건강과 신생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분들이 산모 신생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후관리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이 산후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종사한다.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 방법으로 바우처 사업을 통해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의 비용을 지원한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도우미, 등·하원 도우미 등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있다. 아이의 성장 발달과정에 따라 아이를 돌보게 되

는 장소는 보육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등 다양하다. 이러한 돌봄비용도 주로 이용자 비용 부담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는 돌봄의 복지정책에서는 이용자의 부담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몸이 불편해 병·의원을 이용할 때도 포괄간호 간병이라는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소용되는 지출 비용을 낮추어 주는 비용지원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이용자의 관점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낮추어 주는 경감 위주의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나 관련 부처의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지원정책이 종

사자를 위한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사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종사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이라는 소속감, 돌봄 업무에 대한 자긍심, 낮은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충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돌봄 종사자의 관점에서 이분들이 일하는 장소와 공간에서 차별 없이 일할 기회와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면 돌봄 종사자의 부족 현상을 막고 돌봄 분야에 취업하려는 취업 기회가 확장되지 않을까 독자들 함께 우리 생각을 고민해 본다.

최근에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한 분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돌보다 우연한 사고로 넘어져서 관절을 다친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로 어르신의 치료비용은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비용을

지원해 드렸지만, 가족분들의 원망스러운 눈길로 인해 더 이상 그 어르신 맥을 방만해 돌봄 업무를 계속할지 그만두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례를 접하게 됐다.

돌봄 서비스는 열 번 잘하다가도 한 번의 사건이나 사고가 있다면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물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관련 법에 규정된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해당 법규 위반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돌봄 종사자로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지만 막상 해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신건강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해 앞으로도 계속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로 어르신 돌봄 주시길 바랄 뿐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은 서비스의 품질이 보장되는 정책이 요구되며, 제공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서비스 제공자의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로 본다.

화성의 정론지 화성신문

구독료를 납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신문은 여러분의 구독료로 만들어집니다

월구독료 1만원 ※자동이체를 희망합니다

계좌번호 : 농협 351-0076-7779-73 (주)화성뉴스 문의 (031)232-1980

- ▲홍치유 ▲이상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주)남경 ▲진석범 ▲황정화 ▲김영미 ▲최선덕 ▲연돈원 ▲박대선 ▲석우초등학교 ▲마도기업인협의회 ▲(주)화성합동 ▲이호경 ▲(주)마중물대리 ▲(주)헤인센더 ▲대한토지개발 이명후 ▲오보환 ▲원영현 ▲(주)나앤나 ▲진양테크 ▲(주)한서정밀 ▲양진춘 ▲김정아 ▲윤태하 ▲태광테크 ▲이현중 ▲천광인 ▲이해남 ▲(사)한국음악협회화성시지부 ▲차호원 ▲화신지관산업 ▲화성도서관 ▲김종복 ▲삼고고등학교 ▲우정초등학교 ▲(주)한국티알 ▲김근영 ▲성산초등학교 ▲화성교육센터 ▲도서관정책과 ▲서신초등학교 ▲(재)화성산업진흥원 ▲노작홍사용문학관 ▲이산고등학교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감우석 ▲김소연 ▲박두환 ▲이건 ▲이광석 ▲이유리 ▲최경선 ▲최형희 ▲방희복 ▲화성오산교육 ▲화성시여성청소년 가족재단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화성소방서

화성시 3.1절 이모조모

아! 제암리 제노사이드 '평화의 외침'



제암리 학살 사건의 희생자 이름으로 두렁바위 만들기 작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이름으로 두렁바위 작업

매출문화예술진흥원(원장 문제도)은 2일 매홀갤러리(구 발안프리미엄아울렛)에서 향남 RCY 어린이 25명과 함께 제암리 학살사건으로 순국하신 29분 중 이름이 알려진 27분의 한글 이름으로 두렁바위를 만들기 위한 한글 자음과 모음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문제도 매출문화진흥원 원장은 "제암리(堤巖里)의 암(巖)자는 바위 암자로 논두렁에 큰 두렁바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두렁바위가 제암리의 상징이다"라며 "제암리 학살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한글 이름을 컬러클레이를 이용해 자음과 모음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연결해 붙여서 두렁바위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업은 매출문화예술진흥원 2024 첫 기획전 아! 제암리 제노사이드-평화의 외침 프로젝트의 일부로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제암리 3.1운동을 매년 진행하는 기념비적 사업 성격을 벗어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으로 확장한 문화예술운동이다. 지난 1월 20일 제암리 제노사이드에 대한 강연(김주용 교수, 손제세 박

사)을 시작으로 5월 7일까지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개개인 한자 성함 파자작업을 통한 그림(문제도 화가), 제암리 제노사이드 시 창작(윤인환 시인), 무용, 시낭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컬러클레이를 이용해 돌아가신 분들의 한글 이름을 이용해 자음과 모음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 학생들은 제법 진지하게 한 글자씩 만들어 갔다. 이렇게 만든 글자들은 두렁바위 형상의 구조설치물에 이어서 붙여 4월 13일에 진행될 아! 제암리 제노사이드-평화의 외침 오픈식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제도 매출문화예술진흥원장은 "지식, 가치관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제거하는 의도적인 학살의 한 형태인 '제노사이드.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모습으로, 인류의 본질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암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시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는 '가치상대주의'와 '문화상대주의'라는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성료

4월 독립운동기념관 개관 앞뒤

화성시가 1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윤대성 광복회 화성시지회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광복회지회 및 독립유공자 유족, 유관기관장, 시민 100여명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기념사에서 "화성시 3·1 운동 항쟁지와 4.15 제암리·고주리의 숭고한 희생이 화성시를 넘어 한국독립운동사의 정신적 지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주독립을 향한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화성시의회장은 축사에서 "독립의 열기로 뜨겁던 그날부터 10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선열들이 꿈꿨던 나라를 이루어냈으며, 그들

의 애국정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기념공연에서는 화성시 관내예술단체가 '홀로아리랑' '독립군가' '영웅 OST'를 성악과 클래식으로 어우러진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편 화성시는 4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전반기를 다룬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 같은 장소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송산 3.1만세 운동을 기억하다



3.1절을 맞아 애국지사 유족들이 만세 삼창을 외치고 있다.

화성시가 3.1절을 기념해 1일 송산면 3.1만세 운동공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송산지역 3.1만세운동은 화성지역에서 가장 먼저 전개된 만세운동이다.

화성 전지역 3.1만세운동의 효시적 열화로써 공격적인 만세운동을 이끌어냈다. 사강장터 만세운동은 농민, 상인, 지식인, 부농, 소작농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자주적 만세운동이다.

일본인 순사부장을 처단하는 공세적 만세운

동으로 국난극복에 임하는 불굴의 호국정신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중의식을 발현한 패거로서 영원한 송산인의 자존 가치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기념사, 축사,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헌화 및 참배로 마무리됐다.

화성 송산지역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3월 4일 수원 연무대 수백명의 시위운동과 3월23일 수원역 부근 서호에서 700여명의 군중이 모여 시위를 벌이는

등 점차 수원, 화성 인근까지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 전해졌다. 이러한 3.1만세운동소식을 전달받게 된 송산면 사강리 흥명옥, 흥준옥, 흥효선 등과 고종황제의 국장에 참여하고 돌아온 문상식은 동자를 규합해 3월 26일 흥명선 집에 모인 200여명을 설득해 오후 5시경 송산면사무소 뒷 솔밭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3.1만세운동은 사강장날인 3월 28일 오전 10~11시 사강장터, 송산면사무소, 사강주재소 등에 2000여명이 모여 국권회복을 위해 태극기를 차켜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병길 3.1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면서 "민족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애국심으로 뭉친 안보관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조국을 물려주고 책임을 다할때"라고 전했다.

왕의항 회장은 3.1만세운동 유족을 대표해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며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저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인재를 찾습니다

(문의 : 화성시일자리센터 031-5189-4211~3)

Table with 6 columns: 회사명, 소재지, 모집직종, 인원, 근무형태, 급여. Lists various job openings in Hwasung.

한국연예예술단, 소외계층 위한 효니눔음악회 개최



한국연예예술단이 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 위한 음악을 선물하고 있다.

한국연예예술단(단장 전병찬)은 28일 화성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소외 어르신들을 위한 효니눔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화성신문 후원, 화성사랑회·수원축산농협·수원농협 협찬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호겸 경기도의원, 장주의 수원축산농협 조합장, 엄규중 수원농협 조합장, 정구건 화성사랑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사랑을 나눴다.

공연 전 유공단원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장, 화

성시의회 의장, 수원축산농협 조합장, 수원농협 조합장이 표창을 전달했다.

공연은 신디아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예술단의 노래와 춤, 정은 가수의 화성팔경, 정도원 내잘못이야, 박경원 경기명장 등을 통해 어르신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물했다.

전병찬 한국연예예술단 단장은 "아쉬움도 많은 행사였지만 우리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 어르신의 모습이 될 것으로 힘이 있을 때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면서 "많은 관계자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뤄진 이번 공연을 매년 분기별로 어르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Advertisement for Dongtan City Hospital (동탄시티병원) featuring a surgical team and a 'Patient Safety' award seal. Text includes 'Since 2010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and '신재흥 병원장'.